

진도군, 전남농업경영인대회 성료

‘전남의 미래는 농민으로부터’ 주제

한농연 “희망찬 국민농업시대 열겠다”

진도군이 ‘전남의 미래는 농민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가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회 첫째 날에는 시군 화합의 밤 행사로 만남의 장이 열었으며, 둘째 날에는 미래농업 발전 대토론회와 환영 만찬회에 이어 열린 환영식에서는 10개분야 65명이 수상했다.

또 진도 출신 가수 송기인이 출연하는 MBC 가요페스티벌 행사를 대미로 장식하면서 다음날 시군 회장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무안군,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무안군은 2019년 하반기 군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하반기에 운영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13주간 무안읍과 삼합읍 2개소에서 운영되며, 총 13개 강좌(무인지역 △부동산경매사 △네일아트 △메이크업 △약용관리사 △연필세밀화 △가죽공예 △나노 플로리스트 △그림책 육아와 책놀이 △리더십스피치, 남악 지역 △마크라메 △그림책육아와 책놀이 △심리로 배우는 건강한 가족 △이로마 캠들 & 천연비누)를 운영하고 수강료는 무료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무안군인 군민이라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각 과정 당 모집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수강 신청은 각 읍면 사무소 종무팀 및 남악주민자치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나, 평생학습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13개 과정을 개설하였다.”며 “이번 프로그램 개강을 통해 무안의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심화학습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연계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길 바라고, 앞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학습기회로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대회기간 중에는 진도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진도군 관광버스 투어, 우수 농기자재 전시회, 전통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농업은 전남의 희망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농촌이 살아야 한다”며 “한농연 회원들이 전남을 지향하고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잘사는 농촌, 농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전국 농림축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등

각오와 농업인에게 당면한 농정문제에 대한 요구사항 결의문을 제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전국 농림축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등

을 비롯한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남 농업경영인회 회원과 가족 등 3000여명이 참여해 농업·농촌 발전에 함께 노력을 것을 다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전국 중고등부 배드민턴 대회 및 전지훈련 성료

5일 간 4개 부문

8월 중순 폭염 가운데 강진에 집결했던 전국 중고등부 배드민턴 선수들이 5일 간의 전지훈련 및 강진군 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 중·고팀 초청대회를 마쳤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남녀 각각 중·고등부로 4개 부문에 걸쳐 치러진 제1회 강진군 배드민턴 협회장기 전국 중·고팀 초청대회에서 남중부 1위 팀은 진광중, 남고부 1위 팀은 전대사대부고, 여중부 1위 팀은 성신여중, 여고부 1위 팀은 광주체고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대회는 강진군에서 주최하고 강진군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서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250여 명이 참가하여 동료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세한대, 목포과학대 등 성인 선수들이 대회기간 중 방문하여 후배 선수들과의 코칭 시합을 통해 배드민턴 꿈나무들이 자신이 보완할 점을 알게 하는 등 전지훈련의 성과도 얻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전지훈련의 메카인 강진이 다양한 대회를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 소득 증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스포츠 마케팅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한국형 청소차’ 도입으로 실무원 안전 확보



영암군은 환경실무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부문이 개선된 ‘한국형 청소차’ 2대를 도입해 8월 말부터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형 청소차는 2018년 환경부에서 환경실무원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환경과 지형 등을 감안해 개발한 차량 모델로 ▲운전자 가 차량 사방을 확인할 수 있는 360도 어리운드뷰 설치 ▲작업자 승·하차 확인용 카메라 ▲차량 내부 안전한 탑승공간 확보 ▲차량외부스 피커를 통한 운전자와 작업자 간 상호 의사소통 가능 ▲후방 양쪽 조작 스위치 ▲유압 안전장치 설치 등 환경실무원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낭만항구 목포’ 대형 BI 기 설치

목포시는 고속도로 목포 IC에서 북항 방향 도로변에 시 브랜드 슬로건 ‘낭만항구 목포’ 대형 BI(Brand Identity)기를 설치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목포의 차별화된 매력과 미래 가치를 함축한 브랜드 슬로건 ‘낭만항구 목포’를 확정하고 금년에는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여 광고탑, 플래카드, 유인물 등 다양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낭만항구 목포

대형 BI 기 설치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으로 일환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항구도시 목포의 매력을 함축한 슬로건 ‘낭만항구 목포’를 더욱 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낭만항구 목포’ 대형 BI기는 교통량 분석 및 외지 관광객 접근성을 고려 목포 IC 인근에 깃봉 높이 30m, 깃면은 가로 5.4m*세로 3.6m로 제작 설치되었다.

해남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해남군은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읍 용정리에 위치한 해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3년 완공, 최대 1일 9,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해남읍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우슬체육공원 전지훈련팀 증가, 구교리 일원 상업시설 확장 등의 요인으로 하수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농어촌을 하수도이 마을단위로 구축되어 다수의 하수처리장이 난립하고, 소규모 마을이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합 처리시설로 관리하는 방침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신안천일염 음식점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

1004섬 신안군은 지난 15일 대한민국한식포럼(상임회장 문용선)과 신안천일염 사용음식점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한식포럼 회원 7개 음식점과 1년간 신안천일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내 레스토랑 설치와 메뉴판에 신안천일염 사용을 표기하기로 하였다.

신안군에서는 협약 음식점에서 희망하는 제품에 맞는 공급업체를 선발하여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업체의 제품관리, 납품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며, 증표로 현판을 전달했다.

신안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

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음식점들에 신안천일염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절임 및 김치 업체 등 각종 가공 제품에도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발맞춰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신안천일염 유통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협들과 단일 브랜드 및 유통망 구축을 협약하였으며 농수산물판매유통 전담부서 신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유통센터 건립, 테마공원 조성, 각종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